

제자훈련과 기독교 세계관^{*}

: 옥 목사의 저서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자훈련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평가

김준호(밴쿠버 순복음교회 목사)
양승훈(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교수)

논문초록

본 논문은 전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였던 옥 목사의 제자훈련 프로그램과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비교, 분석한다. 제자훈련의 기본적인 개념은 사도성과 제자도에 기초한 교회론이며,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핵심 개념들은 하나님 나라, 총체적 제자도, 문화 명령이다. 기독교 세계관의 목표는 성경적 세계관의 사상과 삶을 전(全) 창조계에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도성에 기초한 교회론, 성도의 제자훈련을 통한 제자도, 교회의 주체로서의 성도 개념에 기초한 옥 목사의 제자훈련을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옥 목사의 제자훈련은 기독교 세계관적 교회론과 사역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보완할 점들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1)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복음의 이해와 가르침; (2) 문화 명령과 지상 명령의 분리를 극복; (3) 개인적, 교회적인 제자도를 포함한 공동체적, 공적인 제자도의 강조 등이다.

주제어: 제자훈련, 기독교 세계관, 교회론, 사도성, 제자도, 하나님 나라, 문화 명령, 성도(평신도)

* 본 논문은 양승훈 교수가 지도한 김준호의 기독교세계관문학석사(MACS) 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2011년 5월 9일 접수, 6월 8일 수정, 6월 21일 게재확정.

I. 서론

흔히들 21세기 시대정신을 가리켜 포스트모던주의라고 말한다.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지구촌화 되면서 한국사회도 이러한 시대정신과 문화에 노출되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19세기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인 폴 고갱(Paul Gauguin)은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작품을 남겼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관적인 핵심질문을 오늘날 한국 사회 속에 있으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기독교적인 변혁의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교회에 적용하여 볼 수 있다. “한국교회는 어디서 왔으며, 어떤 사회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과연 21세기 한국교회는 점점 다원화와 포스트모던화 되어가는 한국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지도력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이와 같은 질문과 관련하여 한국교회의 대사회적인 지도력과 정체성, 문화에 대한 영향력은 아주 저급한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010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발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5점 만점에 2.58점이었고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17.6%였다. 이는 지난 2008년의 18.4%, 2009년의 19.1% 보다 떨어진 수치로서 다섯 명 중 한 명 정도가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

주목되는 점은 종교기관 호감도 항목에서 3년 연속 각각 가톨릭과 불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통계다. 이는 21세기 접어들어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많이 추락했을 것이라는 기존의 막연한 추측이 사회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실제 수치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곤혹스럽고 의미심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종교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의 눈에 비춰진 21세기 한국교회의 모습은 목회자와 성도의 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낮은 신뢰도, 개인주의적 기복주의, 대형교회의 물량주의와 권위주의, 교회 지도자의 물질적, 성적 탈선 등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인 평가로 극심한 신뢰 상실의 위기에 놓여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국교회의 대

1)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지난 2010년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글로벌리서치(대표: 지용근)에 의뢰하여 전국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론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라. <http://trusti.kr/> 자료집 - 2010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자료집.

사회적 봉사가 다른 종교들보다 많다는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아쉬움도 크지만 성경과 교회를 통해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와 종교로부터 칭찬과 신뢰를 잃어버렸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종말론적인 전위로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주체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운동의 부정적인 객체로 전락할 변곡점에 있다.²⁾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하나님나라를 위한 내부의 개혁과 세상에 대한 영향력과 신뢰도를 공히 회복할 수 있는 변혁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

본 논문에서는 미래 한국교회의 정체성 회복과 문화변혁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지난 40년간 한국교회 갱신과 평신도 제자훈련에 공헌했던 故 옥 목사의 제자훈련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의 제자훈련이 한국교회에 끼친 긍정적인 요소들과 더불어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좀 더 발전적인 21세기 제자훈련의 방향과 미래를 모색하고자 한다.

옥 목사는 자신의 사역을 두고 ‘서초동 땅 속 깊이 움막을 파고 카타콤 같은 것을 지어 밖으로도 나오지 않은 채 사람을 훈련시키고 양육하였던 것에 집중되었다’고 했지만 그가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기 전 몇 년 간과 사랑의 교회 사역 기간, 그리고 은퇴 후 국제제자훈련원을 중심으로 한 사역 등 약 40년간의 사역을 통해 한국교회 전체에 많은 영향력과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³⁾ 하지만 지금까지 옥 목사의 제자훈련에 대해서는 주로 교회 내부에 끼친 영향력과 의의에 집중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제자훈련의 대사회적인 영향력과 발전적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교회에서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옥 목사의 제자훈련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21세기 한국교회가 단지 미래적 하나님 나라만을 향해 가는 피안적 게토(ghetto)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한국사회를 비롯한 전(全) 창조계에 드러냄으로써 진정한 제사장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

2) <http://www.newsjoy.co.kr/> 김희권, “세상과 소통하는 그리스도인(3)”, 2008년 10월 1일자 칼럼 중 인용. 이에 대해 김재영 목사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소유하지 못한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전진과 확장에 방해꾼이 된다고 말한다. (김재영, 2010: 66).

3) 옥 목사의 제자훈련 사역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축복을 누린 사람들의 회고와 평가에 대해서는 『8인이 말하는 옥한흠』(서울 : 국제제자훈련원, 2004)과 최근에 나온 추모집 『은혜의 발걸음』(서울 : 국제제자훈련원, 2010)을 읽어보라.

기를 염원한다.

지금까지 옥 목사의 제자훈련에 관해 이미 다수의 논문과 책이 출간되었지만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제자훈련을 조망하고 분석한 글은 많지 않다.⁴⁾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급적 옥 목사의 제자훈련에 관한 일반적 논의는 지양하면서 제자훈련과 기독교 세계관의 상관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II장에서 옥 목사의 제자훈련의 신학적 토대와 기독교 세계관적 조망을 논의하되 제자훈련에 나타난 3가지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성에 기초한 교회론, 제자도, 평신도를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통전적인 제자도, 문화 명령 등과 어떻게 조화되고 상호 보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III장에서는 점점 추락해 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 문제와 문화변혁 사명에 관한 21세기 대안적 제자훈련의 방향 제시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며 결론에서 옥 목사의 제자훈련과 기독교 세계관이 공히 추구해야 할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논의를 맺으려 한다.

이런 연구를 위해서는 옥 목사의 제자훈련에 관한 전반적인 면 - 그의 가르침과 설교, 세미나, 저술 그리고 제자훈련 모델을 지향하는 세계 여러 교회들의 제자훈련 성과와 객관적인 통계자료 및 일반 사회에서 내리는 평가 등 - 을 다루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본 논문의 연구범위를 옥 목사의 주저인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와 몇몇 제자훈련 관련 저서들로 제한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제자훈련의 주요한 모티브와 키워드 중에서 ‘평신도’라는 용어에 대해서 옥 목사의 저서나 문헌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평신도’라는 용어가 줄 수 있는 원의의 왜곡과 변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성도’라는 용어로 교체했음을 밝혀둔다.

4) 한국 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 정보서비스 사이트(<http://www.riss.kr>, 약칭 RISS)에서 옥 목사와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학위논문 21편, 학술지 5편 등으로 나타나 있으며 제자훈련과 관련된 것은 학위논문이 823편, 국내 학술지 논문이 86편으로 훨씬 많은 연구결과물이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제자훈련과 관련한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온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제자훈련과 기독교 세계관과의 관계를 다룬 논문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II. 옥 목사의 제자훈련 이해와 기독교 세계관적 조망

1. 제자훈련의 신학적 토대

옥 목사는 1970년대 대학생 선교단체의 양육과 리더십 훈련에서 제자훈련의 모티브를 얻었다. 그는 선교단체의 모델을 제자훈련에 관한 자신의 신학적 관점으로 다듬으면서 본격적인 “교회용” 제자훈련 모델을 만들었다. 특히, 옥 목사는 제자훈련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바른 교회론에 관한 끊임없는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목회철학이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목회 현장에서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수시로 질문하기를 그만두었다면 그것은 자신과 교회가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영적인 당위성을 망각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우리 모두는 달려가던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무엇인지 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대답이 과연 바른 것인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목회 철학이란 목회자 자신의 교회론에서 나온 목회 신념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옥한흠, 2006: 65).

우리가 이런 옥 목사의 목회적, 신학적 성찰을 받아들인다면 제자훈련의 신학적 토대는 우선적으로 교회론, 특히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신약교회의 본질적 요소에서 찾아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옥 목사의 교회론 배경이 된 중요한 저서는 한스 쾅(Hans Küng)의 『교회론』을 들 수 있다.⁵⁾ 옥 목사는 제자훈련을 단순히 교회를 성장시키는 도구나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지 않고 그것이 가장 성경에 근접한 목회의 본질이라는 신학적 확신을 갖기 위해 부단히 준비하고 학문적인 체계화 작업을 해 나갔다.⁶⁾ 그러한 맥락에서 옥 목사는 교

5) 쾅은 사도성을 교회의 본질을 결정하는 다른 모든 속성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본다. 그에 의하면 모든 평신도는 사도의 계승자로서 예외 없이 세상으로 보냄 받은 예수의 제자요, 소명자라는 것인데 옥 목사는 다른 교회론 책들 중에서 이 문제를 명쾌하게 풀이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옥한흠, 2006: 89; 2008: 51). 비록 옥 목사가 쾅의 교회론을 통해 제자훈련 목회철학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지만 쾅의 신학적 변질의 과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교회론을 전부 수용했다기 보다는 교회의 사도적 본질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고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제자훈련의 신학적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본다. (최중상, 2003: 74).

6) 최중상은 성경에서 발견된 한 사상이 공감을 얻고 공헌을 하려면 그것이 먼저 실제 모델이 되어야

회를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고 다시 세상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과도기적 제도로 이해한다.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실현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유기적, 제도적, 세상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다 포괄적인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의미한다면 교회는 그 통치권 안에 속해 있는 과도기적 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신도는 천당 가기 위해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소명을 모르고 있거나 결여되어 있다. 지상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특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 받은 소명을 가지고 있다(옥한흠, 2006: 72-75).

우리는 여기서 옥 목사가 교회의 핵심을 사도성에 비추어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도성에 기초하여 옥 목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사도들의 세대 계승 제자 삼는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옥 목사는 성경에는 ‘제자도’ 라는 말이 없지만 ‘제자도’는 사도성이라는 교회 본질에 일치하는 성도의 자아상을 재건하는 성경적인 기본 전략이라고 했다(옥한흠, 2006: 121-122).

그렇다면 제자훈련이 지향하는 내용과 목적은 무엇인가? 옥한흠(옥한흠, 2006: 192-193) 목사는 “제자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신자의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인데,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각자의 왕,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따르며 배우며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으로 여기에는 성도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인격적인 면과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소명자로 만드는 작업인 사역적인 면이 다 포함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옥 목사의 제자훈련 신학은 1980년 이전의 한국교회가 엄청난 양적 성장을 경험했던 이면에 개개인의 기복신앙, 신비주의, 삶과 신앙의 이원론적 분리라는 비성경적인 변형신학과는 분명히 차별되는 그 무엇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옥 목사의 제자훈련의 신학적 뿌리는 사도성에 기반을 둔 교회론에서 나왔고, 그러한 교회론에서 ‘제자도’를 전면에 내세운 목회철학이 형성되었으며, 이 목회철학에서 ‘제자도’를 구체적으로 부름 받은 교회와 보냄 받은 소명자로서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도와주는 목회방법으로서 ‘제자훈련’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하고 강의와 교재를 통해 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론적으로 신학화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옥 목사의 제자훈련 사역과 사랑의 교회 목회사역이 역할 모델(Role Model)이 되어 온 것을 제자훈련의 신학적인 입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최중상, 2003: 52).

이제 다음 절에서 옥 목사의 제자훈련의 핵심 목표인 제자도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입장을 밝힘으로써 옥 목사의 제자훈련이 어떤 점에서 공과가 있는지를 살피면서 21세기 제자훈련이 기독교 세계관적 제자훈련으로 보완되어야 함을 좀 더 논증하고자 한다.

2. 제자훈련에서 말하는 제자도와 성경 내러티브 및 복음 중심적 기독교 세계관의 통전적 제자도

본 절에서는 옥 목사의 교회론이 구체적인 목회전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제자도’라고 보고 그의 제자도가 추구하고 강조하는 바를 성경 내러티브 및 기독교 세계관의 ‘통전적 제자도’라는 관점에서 비교, 분석할 것이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사상과 운동의 흐름을 섭리하실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성경과 시대를 꿰뚫는 개혁과 갱신의 키워드를 사람들에게 주셨음을 알 수 있는데 옥 목사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제자’라는 단어였다.⁷⁾ 옥 목사는 특히 신약성경의 교회론을 연구하면서, 그가 끊임없이 고민하였던 제자의 개념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이전의 목회자들과 구별되는 제자훈련 목회와 신학을 정립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성경에는 ‘제자’라는 말의 확실한 정의가 설명되어 있지 않고 ‘제자도’라는 말도 없지만 옥 목사는 ‘제자도’야 말로 믿는 자의 삶이요, 걸어가야 할 과정이요, 끝까지 지향해야 할 목표요, 동시에 교회의 사역 자체라고 보았다(옥한흠, 2006: 122). 옥 목사는 사도성에 근거해 성도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제자도 - 작은 예수가 되는 것 -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교인을 만들라고 하지 않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함의에는 한 사람의 철저하고 계속되는 변화가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⁸⁾

7) 어거스틴은 자신의 신학과 삶에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핵심 개념을 당시의 로마 시대에 대항하여 일관되게 나타내었고 루터는 ‘이신칭의’를 종교개혁과 신학의 핵심으로 삼았으며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핵심 개념을 제네바 시의 개혁과 성경연구 및 주석에 적용하였다. 이 외에도 교회의 개혁과 갱신의 시기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경과 시대를 통합하는 핵심 키워드를 주심으로 그 시대에 교회가 부족하였던 점을 보완하게 하고 세상에 강력하게 현시해야 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게 하셨다.

8) 옥 목사는 예수님의 원리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먼저요, 일을 맡기는 것은 그 다음의 과제라는 것

제자도에 대한 옥 목사의 이러한 주장은 양적인 성장 제일주의에 치우쳐 제자가 아닌 무리를 모으는데 많은 관심을 쏟았던 보수적 한국교회에 커다란 충격과 도전을 동시에 주었다. 왜냐하면 옥 목사의 제자도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가르침과 삶에 근거하여 제자도를 인격적 위탁자, 증인, 종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명확한 방향과 내용을 내세웠기 때문에 단순히 선교단체에서 차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식으로 반박을 할 수가 없었다. 만일 제자훈련이 이대로만 된다면 단지 교회 내부만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 속에서도 제자도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핵심적 전략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논자는 옥 목사의 제자도가 지향하고 있는 일관된 기독교론적인 중심과 신약의 교회론을 지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옥 목사의 제자도가 성경 전체의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심화된 중심개념⁹⁾을 위와 같은 제자도의 내용과 조화시키거나 보완하는 측면에서 더 깊이 있는 신학적 숙고와 통전성¹⁰⁾이나 포괄성을 이루어 내지 못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근래 기독교 세계관 연구에서도 그 동안 논의된 기독교 세계관 연구가 지나치게 추상적, 사변적, 철학적으로 치우친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반성과 대안으로서 통전적이며 포괄적인 성경신학적 연구의 긍정적인 도입을 통한 세계관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캐나다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교(Trinity Western University)의 기독교 세계관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인 마이클 고헤인(Michael W. Goheen)은 지금까지

을 강조하는데 이에 대한 실례로 평신도의 중요성에 눈을 먼저 뜬 에큐메니칼 운동의 옹호자들이 실천적 행동에 우선권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평신도 운동은 탁상공론이 되었고 뒤늦게 성경에서 발견한 제자도를 전략으로 삼은 선교 기관들은 커다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옥환흠, 2004: 55-56; 2006: 62-63, 123-124).

- 9) 결국 이것은 성경 신학 연구를 통해 성경 전체의 주제를 어떤 키워드로 잡는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상당수의 학자들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George E. Ladd, Graeme Goldsworthy, 이승구)라고 보았고 어떤 이들은 계약(O. Palmer Robertson), 공동체(Stanley J. Grenz, 김현진) 등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신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역사적 계시의 발전 과정을 중시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핵심개념을 제시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옥 목사의 제자도는 다분히 신약성경에 치우쳐 있어서 이런 통전적인 핵심개념을 이끌어 내기에 무리가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제자도의 적용과 실천에 있어서 그 범위와 영향력은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상당 부분 태생적으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10) 송인규에 의하면 통전성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이 보유한 특성들 혹은 요소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것들이 전체적 통일성 가운데 융합과 조화를 나타내도록 돕는 특질이다. 즉, 어떤 사물이나 대상의 다양한 특성이나 요소를 인정하는 것과 그렇게 다양한 특성이나 요소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함이 담겨있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송인규, 2009: 124-130).

지 기독교 세계관의 구조를 가장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왔던 ‘창조-타락-구속’에 대해 그것이 성경 이야기 즉, 내러티브의 기반을 부인하거나 혹은 그 구조를 손상시켜 기독교 세계관 논의 자체가 비(非) 성경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고한다.

성경의 가르침을 창조-타락-구속의 세계관으로 환원하는 시도마저도 성경이 지닌 내러티브 구조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성경 이야기야말로 우리가 세계와 인생을 이해하는 통로라고 말할 때, 이는 해석학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주장을 담는 진술이다.---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3요소가 모든 면에서 전반적인 성경 이야기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 이야기 자체는 아니며 세계관을 명료하게 정립하기 위해 그 이야기에 깔린 기본 가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다(Goheen, 2007: 189-191).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제자를 삼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것의 핵심전략이 제자도이든 성경 내러티브에 중심한 기독교 세계관이든지 간에 이것들보다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고헨은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이상, 세계관을 포함하여 어떤 주제에 관해 사고하던 성경적 신앙이 말하는 좋은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복음은 방향을 재정립하는 능력 그 자체로서 일차적으로 교리나 신학이 아니고, 세계관도 아니며,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자 창조 세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성령의 도구라고 말한다(Goheen, 2007: 182-183).

성경 이야기(내러티브) 전체가 가리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시키는 좋은 소식인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선포와 적용에 있어서 창조의 일부분에만 국한시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게 했다. 고헨(Goheen, 2007: 186)은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구속의 목표는 창조 자체라는 사실을 놓치고 소위 영적인 영혼구원 사역으로 이해하고 가르친 것을 비판하면서 구속은 ‘창조의 모든 범위를 포괄하며 모든 창조 세계에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복음은 우주적이신 하나님의 왕권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임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며 성경적 제자도와 성경적 세계관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의 근본주의 교회 지

도자들이 이러한 복음의 본질을 무시한 채, 제자도를 전(全) 창조계의 영역이 아닌 폐쇄적인 종교적 계도로 국한시켜 적용한 결과 성도로 하여금 영혼구원과 사회참여 사이에서 극단적인 길을 걷게 하는 우(愚)를 범하였다고 생각된다. 계약신학자인 팔머 로버트슨(O. Palmer Robertson)은 근본주의 기독교가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점을 이렇게 지적하였다.

근본주의자는 기독교의 의미를 영혼의 구원으로서 좁게 본다. 그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계약을 배경으로 하여 전 삶의 양식에 미치는 구속의 효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게 된다. 이 관점은 그 결과 구원의 의미를 경제, 정치, 상업, 문화의 세계로 이끌어 갈 구원받은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게 된다(Robertson, 1995: 88).

비슷한 맥락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제자도에 관한 주목할 만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해 주고 있는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제자훈련을 돕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대화와 교육과 설교 -해당 직분의 경우- 를 통해 천국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야 한다. 실제적 의미에서 그것은 그런 다양한 의사 전달의 초점을 -예수의 교육 방식을 포함해- 복음서와 그분의 가르침에 둔다는 뜻이다. 이것은 기도와 사랑의 행위와 아울러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매혹하여” 본격적 제자도의 단계에 들어설 준비를 시키는 우리의 방법이다(Willard, 2007: 559).

윌라드의 지적대로라면 제자훈련을 포함한 앞으로의 교회의 모든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 사상과 복음 중심의 내용과 바탕위에 행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예배나 목회사역 혹은 기독교 교육에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사상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특히, 보수 진영에 속한 한국교회는 성경과 기독교 세계관을 기준으로 하는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 돌이켜 보면 20세기 후반 한국교회는 교회의 존재목적과 본질적 사역 혹은 대사회적인 성도의 정체성과 역할에 관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 신학적 논쟁과 혼란 가운데 표류하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옥 목사가 고민하고 실험하면서 한국교회에 알려지게 된 제자훈련은 보수 진영에 있어서 마치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과 같은 희망을 주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옥 목사의 제자훈련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통전성과 총체성을 온전히 드러내지는 못하였다고 본다. 그것은 옥 목사의 제자훈련은 하나

님 나라보다는 주로 교회론에 초점을 맞추었고 거기서 출발하여 제자도를 제시하고 제자훈련을 실행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21세기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은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 내러티브 및 복음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적인 제자도를 온전히 드러내어 개인이나 교회 내에서만 머무는 제자도가 아니라 사회적, 공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통전적인 제자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구비시키는 사역으로 부름 받은 목회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성경 내러티브 및 복음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러한 과정과 결과를 통해 어떻게 성도의 제자훈련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양승훈(양승훈, 2006: 24)은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에세이에서 오리 농장에서 부화하고 길러왔던 오리가 30센티미터 정도 되는 물통 안에서조차 헤엄을 칠 줄 몰라 빠져 죽은 실례를 소개한 뒤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성경적 사고와 행동의 일치성을 역설하였다.¹¹⁾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처음 회심할 때 예수님을 영혼의 구원자로서 혹은 천국 가게 해주시는 분으로는 잘 받아들이는데 반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분을 주(主)라 시인하는(빌 2:11) 순종의 삶은 살지 못하고 있음을 말한다. 다시 말해 한국교회의 구원론에 있어서 통전적인 제자도의 내용이 설교와 가르침, 기독교 교육, 전도 등에서 실종되어 버린 것이다.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한국교회를 되돌아볼 때, 옥 목사가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제자도를 부르짖었던 198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성경적 세계관과 교회론에 입각한 건강한 교회성장 대신에 양적 성장에 지나치게 집착해 왔고 그 결과 양적으로 크고 많은 것이 곧 기독교의 축복이며 성공이라는 세속적인 교회관을 암묵적으로 용인해 왔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물량주의와 개교회주의, 성장주의 등은 진정한 기독교적 지성을

11) 저자의 역작인 다른 책에서 저자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삶의 일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기독교적이 되는 것은 결코 분리할 수도 없고 헤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이 적은 게 아니라 성숙한 신자, 즉 ‘기독교적인’ 사람이 적다는 것이다. 기독교적 세계관에 흠뻑 젖어서 자신이 처한 삶의 현장 어느 곳이든 지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크리스천이 많아지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문화변혁의 관건이 될 것이다.” (양승훈, 2006: 44-45).

편협적인 교리주의로 밀어냈고 많은 신자들이 사실/가치, 공/사의 이분법을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종교적 영역에 국한시킨 채 자신이 속한 전문 영역이나 사회집단에서 유행하는 견해는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게 했다(Pearcey, 2007: 67-68).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 진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적용하는 틀, 즉 기독교 세계관이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체질화 되도록 인도하고 양육하는 것에 대해 빈약한 신학과 신앙을 심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점식은 한국교회와 선교단체가 성경공부는 많이 하지만 개인적, 사회적 성숙이 안 되는 이유를 ‘제자훈련 = 성경공부’ 라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작업과 실천이야말로 체질변화이며 진정한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랐느냐, 참 그리스도인이나 하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사는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이렇게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신앙성숙을 가져오는 것이 제자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성경공부만 시키면 이론과 지식은 많아지지만 성경적 세계관이 형성되지는 않는다. 세계관이 변한다는 것은 지식의 변화가 아니라 체질의 변화를 의미한다.---따라서 제자훈련은 다른 말로 하자면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안점식, 1998: 28-29).

이와 비슷하게 이승구(이승구, 2010: 238)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도 개개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철저히 내면화할 때에야 성공할 수 있으며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성화 수준만큼 한국 사회에서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정한 성화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감화와 더불어 ‘기독교 세계관’이 제공하는 영적인 양식을 흡수함으로써 일어난다(김재영, 2010: 61). 그러므로 성도의 성숙과 성화를 강조하는 제자훈련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하며, 제자훈련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복음이 가르치고 내포하는 기독교 세계관을 올바르게 심어주고 외현화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당 내에서의 사역만이 아니라 자신의 지성과 삶과 일터와 가정 등의 영역에서 기독교적으로 살아가는 내용으로 과감하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위의 여러 학자들의 비판적 시각과 현실인식에서 볼 수 있듯이 이원론적 근본주의의 왜곡된 복음과 기독교 세계관의 부재가 빛은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

상실과 내부적 자정능력 상실은 이미 1990년대 들어서 한국교회의 수적 정체와 함께 어느 정도 예상되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한국교회가 질적으로도 스스로를 변화시킬 만한 동력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어쩌면 옥 목사의 제자훈련 신학의 목표이자 목회전략이었던 제자도는 한국교회의 이런 부정적인 병폐를 미리 예측하고 내부의 부패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옥 목사의 제자도는 결과적으로 21세기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 추락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하고 제자도를 개인적인 차원이나 교회 안에서만 머물게 하였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옥 목사의 제자도가 좀 더 성경 전체의 내러티브 및 복음 중심적 기독교 세계관을 기초로 하였다면 전(全) 창조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신국적 제자도로 나아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아울러 하나님의 백성들과 비신자들 모두에게 사회적 개혁에 대한 강력한 도전과 영향력을 주지 않았을까.

이 점은 1990년대에 복음주의 학생 선교단체 ESF 간사로 대학생 사역을 한 뒤 지금은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 재직하는 김희권 교수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옥 목사를 추모하는 글에서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에 관한 명확한 성경적 입장을 한국교회에 제시하면서 옥 목사의 제자도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옥 목사의 평신도 제자화 운동은 그리스도인들을 세계 변혁적 하나님 나라 운동에 헌신하게 한 운동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교회 중심의 헌신과 충성 운동으로 흘렀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불의한 정치·경제 체제에 대해서는 체제 옹호적 혹은 체제 순응적인 입장을 취하게 만들면서 오로지 교회 중심의 영적 활동만 강조한다는 것이다. 세상 한복판에서 통용되는 제자도는 순교적 희생을 요구하는 제자도 일진데, 제자도를 지나치게 부드럽고 감미로운 당의정으로 포장했다는 비판인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의 평신도 제자훈련은 옥 목사가 그토록 열망하던 질적인 목회, 세상을 바꾸는 제자도로 결실되기보다는 교회 규모의 대형화, 양적 성장만을 초래시켰다는 비판도 받는다(김희권, 2010 복음과 상황 10월호).

지금까지 살펴본 옥 목사의 제자도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 옥 목사의 제자도는 신약 성경에 기초한 성경적이며 건전한 기독교론과 구원론, 기독교 윤리를 인격적 위탁, 복음의 증인, 종이라는 3가지 요소로 제시하고 평신도 제자훈련의 목회전략과 방향성을 뚜렷이 드러내어 1980년 이후 대부분 성장일변도로 치우친 한국교회의 갱신과 개혁에 어둠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러나 통전적인 제자도 신학과 실천에 있어서는 개인적이고 교회 내적인 면으로 치우치는 제자도에 머무는 반면에 공적(사회적)

인 제자도를 지향하는 데는 미흡했다고 본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독교 세계관적 조망 가운데 논의한 옥 목사의 사도성에 기초한 교회론과 제자도, 그리고 부름 받은 교회와 보냄 받은 소명자로서의 ‘성도’에 대해 보완되어야 할 21세기 대안적 제자훈련의 방향은 무엇인지 다음 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III. 21세기 대안적 제자훈련의 방향 : 사도성과 문화명령을 결합하는 기독교 세계관적 소명을 지향하는 제자훈련

본 장에서 논자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지면의 제한 관계로 21세기 대안적 제자훈련의 몇 가지 방향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도성과 문화명령을 하나의 언약 관계로 보는 기독교 세계관적 소명을 제안하고자 한다. 옥 목사의 제자훈련은 사도성에 기초한 교회론을 토대로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제자도를 목회전략으로 삼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 그분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지상명령을 이루게 하는 것이 성경적 목회의 본질이라고 보는 목회철학에서 파생된 성경적 목회방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옥 목사의 제자훈련의 주된 모티프가 되었던 것이 바로 사도성 이었다.

사도성이야말로 옥 목사의 제자훈련을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교회론의 본질이었다. 사도성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들은 한스 쿡(Hans Küng)을 통해서 옥 목사에게 전달되어 제자훈련 운동이라는 모습으로 한국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렇다면 쿡의 사도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었고 옥 목사에게 전달되었던 강력한 사상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 동시 제자훈련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문화명령과 어떻게 상호보완 되어야 할지를 논의하는 가운데 21세기 제자훈련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옥 목사는 사도성의 유래를 예수님께서 그의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들의 터 위에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한다(옥한흠, 2006: 89).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 십자가와 부활에 있어서 사도들의 증거와 사역의 터 위에 서 있을 때 사도적이 되고 성경적이 된다고 설명한다.

교회가 사도들의 증거와 사역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이상 그 교회는 사도적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라면 그것은 성경에 일치하는 교회인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을 떠나 사도적 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권위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사도적이라는 말과 성경적이라는 말은 서로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옥한흠, 2006: 90-91).

한스 쾅(Hans Küng)도 교회가 사도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서 사도와 사도적 증언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도직은 전체적으로 일회적이며 반복 불가능하다. 직접 부활한 주님을 목격했고 직접 주님의 사자로서의 임무를 받은, 원시교회의 일원인 그들을 후계자가 대신 또는 대리할 수는 없다.---그러므로 신약성서로 기록되어 있는 바 사도들의 설교는 어느 시대에나 기준이 되는 본래적·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교회의 후대 세대들은 항상 “사도적” 초대 세대의 말씀과 증언과 봉사에 의존한다(Hans Küng, 1995: 145-146).

둘째, 쾅은 사도의 가르침과 사역을 역사 속에서 계승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며 봉사라는 측면에서 사도적 계승, 사명, 봉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렇다면 사도적 계승이란 무슨 뜻인가?---직접의 증인이요 사자라는 기본 직무로서의 사도직은 사도들의 죽음과 더불어 사라졌다.--- 그러나 그 과업과 직분은 남아 있다. 사도적 직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종말 때까지 계속된다. 사도적 과업은 완수되지 않았다. 그것은 땅 끝까지 만민을 포용한다. 사도들은 죽었다.---그러나 사도적 사명은 남아 있다. 사도들의 사명은 그들 개인을 초월한다. 다만 이제 사도적 사명은 직접 주님께 의해서가 아니라 간접으로 인간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사도적 사명이 남아 있으므로 사도적 봉사도 남아 있다.---사도적 봉사라는 사도적 사명의 존속에 사도적 계승이 있다!(Hans Küng, 1995: 145-146)

그렇다면 사도성을 계승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옥 목사는 이에 대해 성직자나 평신도를 가릴 것 없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가 그 계승자로서 자격을 가지며 이런 의미에서 전 교회가 유일한 계승자라는 말은 옳은 것이라고 한다(옥한흠, 2006: 92). 쾅도 소수의 개인이 아니라 온 교회가 사도들을 계승하며 온 교회가 사도들의 설교와 기초 공사와 봉사에 의해 형성되고 지어지고 결합된 하나님 백성,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사도성을 중심으로 교회의 다른 속성들을 연결시켰다(Hans Küng, 1995: 147).

셋째, 쾅(Hans Küng, 1995: 147)에 의하면 “사도들과 그들의 증언에 충만했던 성령은

오늘날 사도적 계승을 교회 가운데 이루고 계시며 실질적 연속성을 이루시는 주체이다.” 옥 목사도 “사도성의 계승을 유효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며 사도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증인되게 하신 그 성령께서 지금은 교회 안에서 성도로 하여금 사도가 전해 준 복음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옥한흠, 2006: 92). 킹은 성령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 말하기를 “교회는 성령이 짓는 것인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교회 안에 활동하고 자신을 계시하며 교회를 설립 혹은 유지하시지만 교회와 성령은 구별하여야 하며 성령은 언제나 항상 자유로운 영”이라고 주장한다(Hans Küng, 1995: 95-96). 따라서 교회는 성령에게 명령하고 성령을 규제해서는 안되며 “성령이여 오소서, 머무소서”라고 기도하고 청할 수 있을 뿐이다(Hans Küng, 1995: 101).

넷째, 위와 관련하여 성령은 교회에게 사도적 증언과 봉사를 명령하시고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다. 성령이 교회에 임재하면서 교회에게 명령하고 있는 사도적 사명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은 킹의 말에서 잘 나타난다.

사도들을 따름으로써 교회는 진정한 복종, 진정한 봉사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다. 사도적 계승이 이루어지는 곳은 그러므로, 교회가 그야말로 생생하게 사도적 증언과 마주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도들의 봉사의 모범을 따르고 있는 곳, 즉 복음을 전파·증언하고 만방에 두루 세례를 주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먹고 공동체를 건설하며 온 세상의 교회들과의 유대와 일치를 도모하는 거기에 있다.---사도적 교회야말로 결코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행하는 것은 외부로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파견된 그 사도적 사명의 수행이어야 한다.---이러한 의미에서 사도적 계승은 근본적으로 사도적 신앙과 고백의 계승만이 아니라 또한 바로 그 때문에 사도적 봉사의 계승이다(Hans Küng, 1995: 150).

옥 목사는 킹의 사도성을 연구하면서 부름 받은 것과 보냄을 받은 것은 둘이 아니며 교회가 사도적 본질을 재발견하면 반드시 양면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고 확신한다(옥한흠, 2006: 171). 하지만 옥 목사가 한국교회를 보고 내린 평가는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명령받았던 대사명, 즉 선교적 소명을 전 교회인 평신도가 계승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신학적으로 바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옥한흠, 2006: 95).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는 제자훈련을 통한 지상명령 성취 내지는 선교적 교회론을 위한 강력한 성령의 내적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으로 쾅의 사도성과 옥 목사의 제자훈련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볼 때, 한스 쾅(Hans Küng)의 사도성이 옥 목사에게 가져다 준 교회론은 a)참으로 성경적이면서도 사도적인 증언과 가르침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바른 진리를 붙드는 교회 b)역사와 현실 속에서 사도적인 계승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뤄가는 교회 c)성령에 의한 사도적 봉사에 순종하고 세상 속에 파송되는 선교적 교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마도 옥 목사는 이러한 사도성에 입각한 교회론과 목회론의 신학적 근거와 결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사도성의 내용을 종합하여 드러낼 수 있는 교회는 비록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제자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하였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성도 전체를 영적으로 깨우고 그들을 사도적 계승자로 세워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이루어가는 비전을 꿈꾸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성도를 깨운다는 것은 바로 그들 각자가 사도의 사역을 물려받은 소명자임을 고백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일이라 할 수 있다(옥한흠, 2006: 102).

그러면 이제 옥 목사의 제자훈련을 통한 사도성의 계승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또 다른 지상 명령이라 할 수 있는 문화 명령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문화 명령을 이해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문화 명령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성경본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창세기 1:26-28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다. 여기서 형상과 모양을 지칭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켈렘(image, 자르다)과 데무쓰(likeness, ~와 비슷하다)가 나타내고자 하는 사상은 사람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라는 사실이다(Hoekema, 1995: 27-28).

또한,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은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도 여전히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특질로서 보통 종교성/영성, 지성, 도덕성, 창의성 등의 자질로 이해된다(송인규, 2009: 44).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지식과 거룩함을 반영하여 지혜롭게 질서와 조화와 균형을 지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심히 좋은 세계’를 형성해야 한다(김재영, 2010: 83). 칼빈 신학교(Calvin Theological Seminary) 조직신학 교수였던 안토니 후크마(Anthony A. Hoekema)는 문화 명령이 하나님의 축복이자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요 사명의 위임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아 온 땅에 편안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었다. 또한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고 온 생물들과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약속하시었다. 이러한 말씀들은 축복의 말씀들이 동시에 명령이요 사명의 위임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일명 문화적 사명 위탁(cultural mandate)이라고 부른다 : 하나님을 위하여 온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를 건설하라는 위탁이다(Hoekema, 1995: 29).

그리고 마이클 고헨(Michael W. Goheen)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로서의 문화 명령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기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라고 요구한다. '문화(혹은 창조) 명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문화를 창조했을 뿐 아니라 문화의 모든 측면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문화와 어느 정도 연대감을 갖고 그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문화적 발전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물러나는 것(만일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부문을 '세상'과 그 이상 숭배 풍조에 넘겨주는 셈이 된다(Goheen, 2007: 204).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의 다스림과 질서를 문화 속에서 나타내고 발전시켜야 하는 축복과 사명으로 받은 문화 명령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먼저 주셨고 사도 이후 모든 성도들이 계승해야 하는 것으로 주어진 지상 명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옥 목사는 보내는 교회로서의 소명과 관련하여 “칼빈(John Calvin)은 세상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가르쳤지만 이 일을 위해 교회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였다”고 말한다(옥한흠, 2006: 84). 이 말은 칼빈을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당시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죄악에서 교회의 순결을 회복해야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회가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등한히 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옥 목사의 이러한 지적이 옳은 것이긴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칼빈이 세상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온 피조계에 걸쳐 인간의 문화 명령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가 지적할 필요가 있는 한 가지 오해는 본질적으로 선교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인간의 활동으로 혹은 대위임령(The Great Commission)을 성취하는 의무로 보는 관점인데, 선교란 인간의 행위가 아

나라 하나님 자신의 파송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이다(Stevens, 2009: 115).

폴 스티븐스(R. Paul Stevens)는 지상 명령(대위임령)과 문화 명령을 분리시켜서는 안 되며 우선순위를 매기는 논쟁을 지양하고 오히려 주님의 ‘최대의 명령(The Greatest Commission)’¹²⁾에 주목해야 한다는 통찰을 제시한다.

선교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대위임령(마 28:18-20)과 문화 명령(창 1:26-28)을 분리하는 잘못을 낳는다. 전자는 복음의 청지기직과, 후자는 생명과 창조세계의 청지기직과 각각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많은 교단들이 둘 중 하나에 최고 우선순위를 둔 채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이 두 명령의 비극적인 분리는 무엇이 가장 거룩한 일인지에 대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의견불일치를 낳았고, 유감스럽게도 서구 기독교에 복음 전도와 사회 정의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왔다. 이보다 훨씬 바람직한 접근은 요한복음 17:18과 20장에 나오는 ‘최대의 명령’(The Greatest Commission)에 주목하는 일이다(Stevens, 2006: 108).

또한, 팔머 로버트슨(O. Palmer Robertson)은 계약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지상 명령과 문화 명령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제자화 사역은 인간의 구원만이 아니라 창조계 전체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지상 명령과 창조 명령의 임무는 서로 상합되어 있다고 말한다.

계약 관계에서 보여준 전인적인 삶의 영역은 “지상 명령”과 “문화 명령”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는 데 기초를 제공해주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와 믿음으로써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복음의 전파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복음”은 좁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왕국”의 복음인 것이다. 이것은 인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 제자화 사역 과정의 중심은 하나님의 창조 전체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일깨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르치는 임무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명을 형성하는 임무는 서로 상합하는 것이다(Robertson, 1995: 88-89).

이에 대해 낸시 피어시(Nancy R. Pearcey)도 말하기를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삶에서 필요한 첫 단계지만, 줄곧 구원받는 법에만 메시지의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되며 교회의 필수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성숙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고, 문화 명령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이라고

12) 이것은 요한복음 17:18절에 근거하여 예수께서 성부가 자신을 세상의 선교를 위해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을 파송한다는 것에서 나온 말로 선교의 본질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타자가 되어 세상에 파송되는 것을 가리킨다.

한다(Pearcey, 2007: 100).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의미에서 일하는 셈인데, 그것은 창조 세계의 청지기직에 해당하는 성부의 일과 복음의 증진에 해당하는 성자의 일이다(Stevens, 2006: 147).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창조세계에 대한 청지기직, 경제 정의, 공동체 건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공동체의 회복, 이웃을 돌보는 일 등을 모두 포함한다(Stevens, 2009: 120).

이러한 맥락에서 소위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해외선교’에 대해 스티븐스는 기존의 선교관이 본국의 성도들을 대신 혹은 대표해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전적으로 일생을 헌신한 특별한 사역자들을 ‘선교사’라고 인정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선교관은 하나님의 온 백성인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에클레시아(모인 교회)와 디아스포라(흩어지는 교회) 양면의 모습으로 동참하는 것이라는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할 것을 웅변적으로 진술한다.

흔히들 ‘선교사’라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 대신에 혹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존 데이비스가 대위임령의 해석에 관한 연구에서 보여 주듯,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를 삼으라고 부름 받은 자는 사도들(및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백성이다. 교회가 선교사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그 자체가 선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 백성이 선교사임을 강조하는 장점만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실은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 창조되었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교는 모인 교회(에클레시아)를 통해서 뿐 아니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디아스포라)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Stevens, 2009: 121-122).

이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게 주어진 문화 명령이 함의하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을 생각해 볼 때, 옥 목사의 제자훈련의 신학적 근간이 되었던 사도성과 유사한 내용과 방향을 보게 된다. 언약 신학자들과 기독교 세계관 학자들 그리고 폴 스티븐스와 같은 장터신학 및 일상생활 신학자들의 문화 명령에 관한 견해와 더불어 쾅과 옥 목사의 사도성의 유사한 점을 지적한다면, a) 복음의 증언과 가르침의 계승에 있어서 주체는 하나님의 온 백성(성도) -교회- 이라는 점 b) 교회를 세상에서 부름 받은 모인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 받은 흩어지는 교회로 보는 점 c) 세상 모든 영역에서 사도적 봉사과 문화 명령을 이뤄가야 한다는 점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목회와 신학의 핵심에는 사도성과 문화 명령이 결합된 사역과 사상이 잘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 옥

목사가 그토록 몸부림 치고 외쳤던 사도성에 기초한 보냄 받은 교회로서의 ‘평신도 운동’ 혹은 ‘제자훈련을 통한 대위임령 성취’는 이상하게도 세상 모든 영역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교회 공동체나 예배당 안에 한정되는 결과를 점점 빚어내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기존의 복음주의가 지상 명령과 문화 명령을 분리하여서 지상 명령을 보다 더 강조하고 우선적으로 치중해 왔던 경향들을 옥 목사의 제자훈련이 뛰어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옥 목사의 제자훈련과 퀘의 사도성에 의하면 세상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창조계에 확장하며 성도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림을 문화를 통해 세상에 구현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옥 목사의 제자훈련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실제적인 제자화 사역(문화 명령 포함)을 이루어가기 위해 구비시키는 과정인데 그것을 지나치게 어떤 특정한 시간, 장소, 사람, 훈련 내용과 커리큘럼에 국한시켜 지상 명령과 문화 명령을 부지불식간에 분리시키면서 문화 명령을 제대로 강조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정말 옥 목사의 제자훈련이 사도성에 근거하면서도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문화 명령과 상합할 수 있으려면, 제자훈련에서 엿보이는 개인경건 중심·교리 중심의 훈련 내용을 지양하면서 문화 명령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다스림’의 성경신학적 내용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신약의 대위임령 우위론에 근거하여 창세기의 문화 명령을 간과하거나 약화시킨 점에 대해 그 둘이 본질상 하나의 언약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언약신학을 기독교 세계관적 입장에서 수용하여 제자훈련의 시각을 새롭게 열어주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한 하나의 예로 양승훈은 학문의 영역에서 일하는 성도들이 대위임령을 좁은 의미의 전도명령으로만 생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도매선교’와 ‘소매선교’의 관계성에 접근하여 명쾌하게 풀어준다.

도매선교사(학자들의 선교)는 소매선교사(일반적인 전도자)가 건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른 성경 해석이나 바른 세계관을 제시하고, 잘못된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등의 공격으로부터 복음을 변증하여 복음에 수용적인 성경적 문화가 형성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기독교적 세계관, 문화, 학문, 윤리 운동 등은 도매선교의 예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도매선교는 소매선교를 위한 ‘건강한 실탄’을 제공하여 전장에서 복음의 전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도

매선교는 ‘소비자들’을 직접 접촉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나 지역 교회에서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도매 선교사들은 훌륭한 글을 통해 사람들에게 직접 전도할 뿐 아니라 훌륭한 사상이나 신학을 만들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양승훈, 2009: 244-245).

이와 같이 성도들이 학문의 영역 이외에도 지상 명령을 문화 명령과 결합시키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곳으로 직업 혹은 장터를 들 수 있다. 폴 스티븐스(R. Paul Stevens)는 내재적으로 일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고 세계에도 선한 것이며, 하나님께도 선한 것이라고 하면서 일과 직업의 영역은 지금까지 교회가 가장 소홀히 해 온 구비 사역의 하나이며,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사역 중 하나라고 단언한다(Stevens, 2006: 150). 또한, 장터를 ‘선교지’로 보게 되면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도모하게 되고, 장터를 ‘선교’로 간주하게 되면 인간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도모하게 된다(Stevens, 2009: 136).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영역을 역시 직장과 노동이라고 강조하는 양승훈은 “우리의 노동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법칙이요, 명령이요, 구속에 대한 감격 행동이요, 예배의 한 부분이요, 이웃 사랑의 표현일 때, 즉 노동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상급과 관련될 때 그것은 지상적인 것을 넘어 천상적인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고 말한다(양승훈, 2006: 203).

그렇다면 이보다 더 광범위하게 우리가 매순간 정치와 경제를 경험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와 국가 문제에 대해서는 대위임령과 문화명령은 어떻게 실천되어야 할 것인가? 이상원은 국가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문화 명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의 말을 빌려 영역주권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각 사회 영역에 고유하게 허락하신 것으로 사회생활의 근본적인 구조적 원리가 된다고 설명한다.

사회의 각 영역들은 그 영역들에 고유한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주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사회의 각 영역들은 정부로부터가 아닌 창조주로부터 존재와 소명을 받았으며, ‘자기의 영역 안에 있는 권위’에 복종한다. 가족, 학교, 교회는 그 영역들에 고유한 삶의 법에 순종한다. 서구 역사를 살펴보면, 이 영역들 안에 속한 기관들은 국민들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형성되었다. 이 기관들은 그 기관들에 고유한 힘, 특징, 양식을 가진다. 이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 기관들 안에서 적용되는 특별한 행동지침이 필요하다. 목사는 교회법, 중산층은 상거래법, 그리

고 노조는 노동법을 요청한다. 이처럼 영역주권은 사회생활의 근본적인 구조적 원리다(이상원, 2002: 52-53).

이러한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은 화란 개혁과 기독교 세계관 사상가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오늘날 기독교 세계관 사상과 운동의 흐름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옥 목사의 제자훈련도 영역주권 사상에 꼭 의존한 것은 아니지만 쾨의 교회론을 통하여 유사한 대사회적 선교와 문화 명령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이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는 서로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회사 교수이자 한국교회의 복음주의 역사에 대한 연구 및 집필에 힘써 온 박용규는 옥 목사와 사랑의 교회 중심으로 일어난 제자훈련 사역이 거의 40년이 넘도록 꾸준히 발전하여 한국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각지의 ‘평신도’ 운동과 제자화 붐을 일으켰으며, 그 결과 각 지역교회의 실제적인 건강한 교회성장과 제자훈련교회 네트워크를 통해 제자훈련이 복음주의의 대사회적·문화적 참여의 흐름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제자훈련이 건강한 한국 교회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은 제자훈련을 통해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증인의 사명을 다하도록 대사회적·문화적 책임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자훈련은 평신도들에게 복음주의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눈을 열어 주어 사회·문화 변혁의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주었다.---성경적 세계관 이식을 통해 제자훈련은 세계복음주의의 흐름과 한국복음주의의 흐름의 지면을 확대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박용규, 2003: 125-126).

위의 평가는 옥 목사의 사랑의 교회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한국교회의 신뢰도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몇 해 전의 연구 논문이다. 박용규의 평가대로 당시의 제자훈련 교회와 운동의 차원에서만 본다면 제자훈련을 도입한 교회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교회가 성장하였고 공적 영역에 대한 교회의 참여 및 봉사도 늘어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제자훈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본질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적 영역의 제자도에 있어서 정작 주체가 되어야 할 성도들의 세계관과 삶에서는 제자훈련을 받더라도 여전히 목회자의 보조자 내지는 교회당 경내에서의 활동에만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제자훈련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였던 송인규는 김스와 모튼의 2가지 유형의 성도(유형 A : 세상 속 성도, 유형 B : 교회 내 성도)에 관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유형 A야말로 세상 속의 각 영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직업을 통해서, 세상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인데 비해, 한국 교회의 소위 ‘평신도’ 운동은 주로 유형 B에 편중되어 이루어져왔고 이것은 대학생 선교단체들의 발전과 맞물려서 일어났는데, 사랑의 교회의 ‘평신도’ 운동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한다(송인규, 2008: 43-44).

다시 말해 사랑의 교회의 ‘평신도’ 운동은 아직까지 세상 속의 성도를 지향할 수 있는 제자훈련을 내세우지 못하고 교회 내 성도 -주로 예배당이나 종교적 기관과 관련된 봉사과 전도에 힘쓰는 교회 내부에 중심을 두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를 세우는 제자훈련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제자훈련과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교회의 주체인 성도들로 하여금 유형 A의 정체성을 가지고 실제적인 삶의 전(全)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제사장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경적 세계관을 제시하고 구비시키는 기독교 세계관적 제자훈련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지상 명령과 관련하여 문화 명령이 분리되지 않고 서로 상합하고 있다는 점과 옥 목사의 제자훈련을 포함하여 한국교회가 성도들을 제대로 구비시키지 못하고 있는 문화 명령의 제 영역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학문, 직업(장터), 국가와 사회 등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알버트 월터스(Albert M. Wolters)는 문화 명령과 관련하여 창조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법이 성경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주어진 하나님의 법에 종속되고 모든 것이 피조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피조계의 분야들을 지상적 영역을 이루는 부분들로 지정하고 규정하셨다고 말한다(Wolters, 2007: 56-59).

그러므로 이제 옥 목사의 제자훈련과 한국교회는 지상 명령과 문화 명령의 이분법적 분리와 그 결과 성도들로 하여금 본질적인 하나의 언약 안에서 제자화 사역의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피조계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법을 나타내도록 구비시키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사도성과 문화 명령을 결합한 기독교 세계관적인 제자훈련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그것을 단순히 사회윤리화 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라는 것을 지상 명령과 문화 명령 안에서 공히 드러낼 수 있는 사역으로의 부름을 오늘날 성도들이 받고 있으며, 21세기 제자훈련은 이러한 소명을 위해 성도들을 철저히 구비시켜야 할 시대적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안토니 후크마(Anthony A. Hoekema)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정하고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탁월한 도매선교사다운 영적 혜안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교회가 교회의 복음 전도적 사명을 행할 때에 가져야 할 태도는 땅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의식을 확신하고 있는 일이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가 그들 속의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며 존중해야할 대상들이다. 만약 그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의 재능들을 죄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자일뿐이다.---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 이들이 지닌 잠재적 역량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관심은 단순히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들의 전 생애 속에서 바른 기능을 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다(Hoekema, 1995: 173).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며(딤후 4:2)”,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여(벰전 3:15)”,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벰전 2:9)” 전(全)피조계에 대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장의 양식인 ‘기독교 세계관’의 공급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의 동력에 인격적 반응으로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그리고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김재영, 2010: 62).

다시 말해서, 성도 혹은 제자가 단지 교회 내에서의 종교적 의식과 활동에서만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 지성을 포함한 삶의 현장에서의 성화가 깊어질수록 지상 명령과 문화 명령을 따로 분리시키거나 한쪽에만 치중하지 않고 양자를 하나의 사명으로 종합하여 삶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제자도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복음이 단지 말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야 함을 가르쳐 준다(안점식, 2008: 282).

그렇다면 지금이 어느 때인가?¹³⁾ 바로 증언과 선교의 시대인데, 증언이란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이나 어떤 유의 봉사 활동으로 축소될 수 없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다(Goheen, 2007: 195). 이것이 바로 사도성과 문화 명령이 서로 결합되어 세상의 모든 피조계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확장하는 성도 혹은 제자의 소명인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제자훈련은 사도성과 문화 명령을 결합한 기독교 세계관적 소명이 무엇이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全)창조계에 그분의 법과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차원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지향하는 기독교 세계관적 제자훈련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 공동체(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공동체(하나님의 장막), 민족 공동체(하나님의 백성)를 모두 아우르는 '사회 중의 사회'가 될 것이다(송인규, 2009: 102-103).

IV. 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옥 목사의 제자훈련과 기독교 세계관이 함께 추구하고 보완하면서 실천해야 할 과제를 하나님의 이 시대에 주신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제시하여 보았다. 이제 옥 목사는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지만 그가 다음 세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남겨주고 떠난 제자훈련의 정신과 내용은 대사회적 신뢰도 추락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하다고 본다. 하지만 본 논문을 통하여 논의한 것처럼 옥 목사의 제자훈련은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디딤돌은 될지언정 모퉁이돌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앞에서 이미 주지하였듯이 제자훈련이 담고 있는 내용과 그릇이 교회가 철저한 공동체적, 공적 제자도 까지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13) 고헤ンは 세계관 연구에 있어서 성경 내러티브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세계관 질문의 틀을 고치는 것에서 시도하고 있다. 그는 라이트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미들턴과 왈쉬가 제시한 기존의 네 가지 세계관 질문(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치료책은 무엇인가?)에 '지금이 어느 때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을 덧붙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질문은 성경 내러티브를 통하여 시대정신과 세계관의 문제점을 꿰뚫는 통찰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Wolters and Goheen, 2005: 192).

성경적 세계관으로 교회의 주체이자 세상변혁의 주체인 성도들을 구비시키기에는 근본적인 신학적, 실천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옥 목사의 제자훈련은 하나님 나라 신학과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재구성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적 세계관에 근접해 있다고 보는 공동체 제자도와 교회론을 적극 수용하여, 기독교 세계관적 제자훈련과 목회로의 전환 내지는 세계관 목회와 교회의 개척 및 분립을 시도해야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앞으로의 제자훈련과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공히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삶의 각 현장에서 드러내는 것을 최우선적인 소명으로 알고 개인적·교회적 차원과 공동체적·사회적 제자도를 포함하는 총체적 제자도의 실천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재영 (2010).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찾다』. 서울 : 국제제자훈련원.
- 김회권, 『복음과 상황』, 2010년 10월호, 발행인 논단.
- 송인규 (2009). 『새로 쓴 기독교, 세계, 관』. 서울 : IVP.
- 안점식 (1998). 『세계관을 분별하라』. 서울 : 조이선교회.
- _____ (2008). 『세계관 종교 문화』. 서울 : 조이선교회.
- 양승훈 (2006). 『기독교적 세계관』. 서울 : CUP.
- _____ (2006). 『몰에 빠져 죽은 오리』. 서울 : 조이선교회.
- _____ (2009). 『그리스도인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서울 : CUP.
- _____ (2006).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 국제제자훈련원.
- _____ (2008). 『제자훈련 열정 40년』. 서울 : 국제제자훈련원.
- 옥한흠 외 7인 (2004). 『제자훈련 영적 부흥과 갱신의 길』. 서울 : 국제제자훈련원.
- 이상원 (2002). 『한국교회와 정치윤리』. 서울 : SFC.
- 이승구 (2010).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 SFC.
- 최중상·박용규 외 5인 (2003). 『교회와 제자훈련』. 서울 : 국제제자훈련원.
- 한국리더십학교 엮음 (2008). 『하나님 나라 리더십』. 서울 : 두란노.
- 홍정길 외 7인 (2004). 『8인이 말하는 옥한흠』. 서울 : 국제제자훈련원.
- Hoekema, A. Anthony. (1986). *Created In God's Image*. 류호준 역 (1995).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 Küng, Hans. (1970). *Was Ist Kirche?*. 이흥근 역 (1995). 『교회란 무엇인가』. 왜관 : 분도출판사.
- Pearcey, R. Nancy. (2004). *Total Truth*. 홍병룡 역 (2007). 『완전한 진리』. 서울 : 복 있는 사람.
- Robertson, O. Palmer. (1980). *The Christ of the Covenants*. 김의원 역 (1995).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 Stevens, R. Paul. (1999). *The Abolition of the Laity*. 홍병룡 역 (2006).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서울 : IVP.
- _____. (2006). *Doing God's Business*. 홍병룡 역 (2009). 『하나님의 사업을 꿈꾸는 CEO』. 서울 : IVP.
- Willard, Dallas. (1998). *The Divine Conspiracy*. 윤종석 역 (2007). 『하나님의 모략』. 서울 : 복 있는 사람.
- Wolters, M. Albert·Michael, W. Goheen. (2005). *Creation Regained 2nd Edition*. 홍병룡 역 (2007). 『창조 타락 구속』. 서울 : IVP.
- <http://trusti.kr/>, 201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자료집.
- <http://www.newsjoy.com/> 김회권, “세상과 소통하는 그리스도인(3)”, 2008. 10. 1 칼럼.
- <http://www.riss.kr/>

ABSTRACT

Discipleship Training and Christian Worldview : Evaluating the Discipleship Training in the John Han Hum Oak's Books by Christian Worldview

Joon Ho Kim(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and Western University)

Paul S. Yang(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and Western University)

This essay tries to compare and analyze discipleship training program of John Han Hum Oak, ex-pastor of Sarang Church in Seoul, with Christian worldview movement. The key concept of the discipleship training is ecclesiology, which is based on apostleship and discipleship and the key concepts of the Christian worldview movement are the kingdom of God, wholistic discipleship, and cultural mandate. The goal of Christian worldview movement is to be focused on pursuing the kingdom of God by exposing all creation to the biblical worldview. From the research, authors conclude that pastor Oak's discipleship training appears to be supported or supplemented by the ecclesiology and ministry of Christian worldview in the following areas: Understanding and teaching of wholistic gospel based on Christian worldview; Overcoming the separation between the Cultural Mandate and the Great Commission; Moving from private and church discipleship to communal and public discipleship.

Key Words: discipleship training, Christian worldview, ecclesiology, apostleship, discipleship, kingdom of God, cultural mandate, saint(laity)

